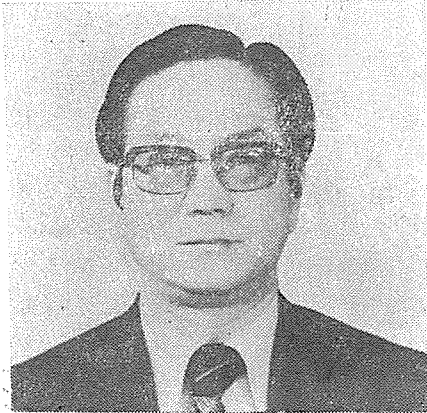


1981. 1. 1

新 年 辭

謙虛한 姿勢와 自省의 精神으로
自我批判하고 自我革新의 새로운
契機를 찾을 때



〈會長 池 憲 澤 博士〉

大韓齒科醫師協會
會長 池 憲 澤

激動과 試鍊으로 수놓았던 庚申년도 어느듯 조용히 저물어 辛酉年 새해 새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本人으로 하여금 大過없이 會務를 수행할 수 있게끔 獻身的인 努力을 기우려 주신
任員陣 여러분과 적극적인 聲援을 보내주신 전국 3천 7백여 會員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새해 새
아침을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 가정에 神의 은총과 萬福이 깃드시기를 頌祝하는바입니다.

會員 여러분!

「待望의 80年代」라는 말을 즐겨 써왔습니다.

그러나 크게 바라고 기대했던 80年代의 序章은 우리의 希望과 期待와는 너무나 달리 不況과 苦難
이 겹쳐서 不透明한 한해 였다고 저는 봅니다.

經濟成長의 鈍化와 인플레이는 국제收支의 惡化를 불러왔고 光州사태·사회정화·새 憲法의 제정 등
社會的 激浪이 일어났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 齒科醫師들 역시 歷史의 수레바퀴에서 外面할 수 없이
日常生活의 어려움을 참아야만 했으며, 難題와 挑戰에 어렵게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해를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해에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잃
었는가, 大韓齒科醫師協會가 무엇을 成就하고 무엇을 失敗했는가, 겸허한 자세와 自省의 精神으로
自己批判을 하고 自我革新의 새로운 계기를 찾아 봐야 하겠습니다.

齒協이 지난해 全力 投球했던 目標은 齒科醫療 人力수급문제입니다.

任員을 총동원하다시피 하여 10개 齒科大學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그 報告書는 齒科大學의 眞實,
증설에 제동역활을 가져왔으며 현존 齒科大學의 內實을 促進시키는 좋은 자료가 되었습니다.

9월초 「함부르크」에서 있었던 FDI 총회에 30여명의 우리 회원들이 참가함으로써 많은 外國人들이 韓國觀을 拂拭시키는 민간의교역활을 충분히 했습니다.

또 10월말 개최된 제32회 종합학술대회는 우리 齒科醫師들의 團結力을 誇示하여 「平生教育」을 목표로 하는 우리들의 참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齒技協이 수개월 걸쳐서도 해결못했던 齒科技工所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를 齒協이 해결해준 것은 快舉중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한 어려운 문제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醫療保險에 이어 診療에 따른 잡다한 문제와 더불어 아직 이루지 못한 診療酬價의 現實化 등 醫療保險의 土着化를 성취하지 못했으며 弘報활동의 미진으로 齒科醫師의 「이미지」 개선을 이루지 못한 점 등입니다.

우리 齒協 임원들은 지난해에 회장이하 전임원들이 오전 교대근무로 임무수행에 熱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與件不備에서 오는 力不足으로 所期의 成果를 못거두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 첫발을 내딛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나아갈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 齒協은 86년도 한국에서 개최될 아시아·太平洋齒科會議(APDC)에 대비한 본격적인 작업을 서둘러야 하겠으며, 올해 「세계 장애자의 해」에 즈음하여 지체부자유자의 진료등 여러 문제에 특히 배려해야 할 것이며 人力수급 조사에 따른 계속사업을 추진하여 적정 의료인력이 수급되도록 해야하며 새로운 國會구성에 많은 우리 齒科醫師가 진출하여 우리 医權옹호에 기여토록 동료애로 적극 밀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기 위해선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所望스런 辛酉 새해에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萬福이 깃들길 다시 한번 祈願합니다.

保寧齒科技工所

(舊：城北齒科技工所)

代 表 任 虎 淳

主任技士 任 東 彬

서울 성북구 삼선동 4가 343

93-1267·94-1283